

신나이가이멘 - 세번수의 이색연사(모꾸이도)로 상품의 폭 넓혀

신나이가이멘(新内外綿)은 이색연사(異色撚絲; grandrelle yarn; 모꾸이도)를 세번수로 뽑아 상품의 폭을 넓혀나가고 있다. 트렌드(trend)가 깨끗하게 뽑히면서도 세번수의 이색연사가 요구되고 있기 때문이다. 2007년 4월부터는 80수의 컬러(color)를 넓혀 5가지 색을 늘리고 있으며, 100수, 120수로도 합사 시 제품을 만들고 있다.

이색연사는 이제까지 60수를 중심으로 여러 가지 컬러의 스톡(stock) 판매를 하고 있는데, 2006년부터 정번적(定番的)인 그레이(gray)색 ‘GR 7’로 80수를 추가하였다. 이 뿐 아니라 이제는 세번수의 다른 색에 대한 문의가 늘고 있어 4월부터 ‘차콜(charcoal)’과 그레이의 담색(淡色)을 중심으로 색의 폭을 넓혀 확충하고 있다. 80수는 5가지 색을 늘려 6가지 색으로 스톡 판매하고 있다. 또한 별도 주문에 따라 100수도 개발하고 있는데 현재 120수로도 개발하고 있다. 품질이 좋은 것을 요구하는 상황에서 60수 단사를 120수 쌍사로 바꾸기를 원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고 한다.

또한 2006년에는 2005년과 비교하여 출하량이 4배 가까이 늘었다는 텐셀의 이색연사도 담색을 중심으로 60수까지 별도 주문에 대응하고 있다. ♣